

[531회] 위버멘쉬

제531회 북티즌 토론 모임은 7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모인빌에서 열렸다. 대상 도서는 떠오름출판사에서 펴낸 프리드리히 니체의 '위버멘쉬'였으며, 토론 주재는 이기상이 맡았다.

북티즌 토론자료 [531회]

■일 시 : 7월 14일 (화) 오후 6:00

■도 서 : 위버멘쉬/ 프리드리히 니체/ 떠오름출판

■주재자 : 이기상

■장 소 : 모인빌

-구판과 개정판 차이-

떠오름 출판사 《위버멘쉬》가 30만부 판매 기념으로 개정판을 발간했다. 단순한 수정이 아닌 처음부터 전면 재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책이라고 한다.

- 원고 전면 재집필: 구판에 남아 있던 느슨한 흐름과 반복적인 표현을 모두 덜어내고, 문장 하나하나의 밀도를 높여 가독성을 강화했다.
- 감성적 위로 배제: 단순한 소비형 자기계발이나 감정 과잉의 위로 문구를 걷어내고, 절제되고 단단한 문체로 삶의 본질을 짚어내도록 문맥을 다듬었다.
- 실제 삶 중심의 재구성: 고독, 실패, 비교, 불안, 자기혐오, 자유와 책임 등 인간이 실제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에 더욱 깊이 닿을 수 있도록 내용을 새롭게 배치했다

위버멘쉬 정의

위버멘쉬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스스로 뛰어넘고, 주어진 모든 고통과 상황을 의지로 극복하면서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최고의 자신을 꿈꾸는 존재다.

그는 낡은 도덕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만의 법칙을 세워 삶을 주도한다.

어떤 고난에 부딪쳐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면서 모든 한계를 과감히 뚫고 나아간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자가 위버멘쉬 이다.

〈위버멘쉬 도서 서문〉

니체의 삶과 사상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고전문헌학자로, 기존의 모든 가치를 전복하고 새로운 삶의 철학을 제시한 사상가이다. 24세의 나이에 바젤 대학교 교수가 되었으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참전과 건강 악화로 1879년 교수직을 사임했다. 그는 평생 극심한 편두통과 시력 장애에 시달리면서도 1880년대에 주요 저작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으며, 1889년 정신 붕괴 이후 11년간 침묵 속에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초기에는 바그너와 쇼펜하우어의 영향 아래 《비극의 탄생》에서 디오니소스적 예술정신을 찬양했다. 중기에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필두로 형이상학과 종교, 도덕에 대한 회의적 비판을 전개하며 '자유정신'을 표방했다. 후기에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 '영원회귀', '권력에의 의지'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하며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기독교적 도덕과 절대 진리의 붕괴를 고지하고, 인간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덕을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으로 구분하며, 기존 도덕이 약자의 원한에서 비롯된 허무주의적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운명애'를 통해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긍정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했으며, 고통과 시련을 성장의 조건으로 재해석했다.

말년에 《안티크리스트》와 《우상의 황혼》에서 기독교와 서양 철학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으나, 이는 정신 붕괴 직전의 작품들이다. 그는 사후에 나치즘에 의해 왜곡·악용되었으나, 20세기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심리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양 철학사의 분수령이라 평가받는다.

유명 인물의 니체 평가

1. 리하르트 바그너 (Richard Wagner, 작곡가)

평가: 음악적 동지이자 정신적 스승으로 여겼으나,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니체는 바그너를 '퇴폐'의 상징으로 비판하며 결별을 선언했다.

2. 토마스 만 (Thomas Mann, 소설가)

평가: 니체 사상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정신적, 문학적 거장으로서의 면모를 높이 평가했다.

3.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 소설가)

평가: 니체에게 깊은 영감을 받은 대표적 문인 중 한 명이다.

4. 장-폴 사르트르 (Jean-Paul Sartre, 철학자)

평가: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서 니체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5. 알베르 카뮈 (Albert Camus, 철학자)

평가: 니체의 사유에 많은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사상가 중 한 명이다.

6. 마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철학자)

평가: 그의 철학적 지평을 여는 데 니체가 결정적이었다. 1961년 저서 《니체》를 통해 니체를 서양 형이상학의 완성자로 평가했다.

7.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철학자)

평가: 니체의 '계보학' 방법론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8.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철학자)

평가: 니체를 '생성과 창조의 철학자'로 재해석한 저서 《니체와 철학》을 남겼다. 니체를 해체적 해석학의 선구자로 평가했다.

9.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철학자)

평가: 니체를 해체주의의 선구자로 보며, 그의 사유를 전유하여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다.

10.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심리학자)

평가: 정신분석학을 정립하는 데 니체의 통찰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11. 칼 융 (Carl Jung, 심리학자)

평가: 니체에게서 깊은 심리학적 통찰을 발견하고 높이 평가했다.

12. 조지 버나드 쇼 (George Bernard Shaw, 극작가)

평가: 니체의 '초인(위버멘쉬)' 개념에 영향을 받아 작품 활동을 했다.

13. H.L. 멘켄 (H.L. Mencken, 언론인·평론가)

평가: 미국 내 니체 열풍을 주도하며 그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소개했다.

니체 잠언집 종류와 특징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1878~1880)

니체 중기 사상을 대표하는 이 책은 전통 형이상학, 종교, 도덕을 비판철학적 입장에서 논의한다. 1876년 바그너의 낭만주의에 환멸을 느낀 니체는 볼테르의 자유정신에 영향을 받아 집필했다. 총 1,411개의 잠언으로 구성된 이 저작은 기성 진리와 가치관의 배후에 속물적 타산이 있음을 폭로한다. 모든 진리는 생존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실용주의적 인식론을 전개하며, 실존적 개인을 자유정신으로 조명한다. 이는 후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초인 개념으로 이어지며, 과학과 학문이 자유정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역설한다. 결

국 이 책은 니체가 전통 형이상학과 바그너 모두와 결별하며 창조적 자유정신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아침놀》(1881)

부제 '도덕적 선입견에 대한 생각들'처럼, 이 책은 도덕 비판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도덕에 대한 나의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했다. 인생 최저점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쓴 이 작품은 약 580개의 잠언으로 구성되며, 중세의 신 중심 사고를 어둠, 인간 중심 사고를 아침 햇살로 비유한다. 도덕이 진리처럼 굳어져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며, 도덕 자체의 부정이 아닌 잘못된 편견을 해체한다. 고대 그리스부터 기독교, 허무주의, 여성, 결혼 등 사회 전반을 분석하며, 신이 사라진 시대에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춤추듯 살 것을 촉구하는 삶의 지침서이다.

《즐거운 지식》(1882/1887)

니체 스스로 '가장 개인적인 책'이라 칭한 이 작품은 가장 많은 시를 담고 있다. 잠언과 시가 혼합된 5부 구성으로, '즐거운 지식(la gaya scienza)'은 프로방스 음유시인의 자유롭고 경쾌한 정신을 의미한다. 암울한 시기를 견딘 후 건강 회복기에 집필되었으며, 《차라투스트라》 직전에 쓰여 '영원회귀'와 '초인' 사상의 싹이 처음 움텄다. 이 책에서 '신은 죽었다'는 선언이 처음 등장하며, 이는 절대 가치 붕괴를 알리고 인간 스스로 새 가치를 창조할 기회로 전환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운명애'를 통해 고통까지 긍정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며, 독자에게 자유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우상의 황혼》(1889)

1888년 여름 폭발적 생산성 속에 집필된 이 책은 니체 철학의 정수이자 압축판이다. '망치로 철학하는 법'이라는 부제처럼, 망치는 타진기로서 우상을 두드려 허상을 드러낸다. 10개 장으로 구성되며, 소크라테스에서 기독교, 칸트에 이르기까지 서양이 숭배한 모든 '우상'의 종말을 선언한다. 이원론적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퇴폐 현상을 집중 분석하며,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지향한다. 기존 진리들의 허상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 폐허 위에 새 가치를 세울 토대를 마련한다. 결국 이 책은 니체가 평생 공격한 형이상학, 도덕, 종교, 퇴폐에 최후 일격을 가한 가장 니체다운 선언문이다.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

1. 자기 극복과 내면의 성장 (Self-Overcoming)

- 관련 항목: 001, 002, 005, 019, 024, 027, 038, 042

- 특징: 이 주제는 목차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특히 "자신만의 길"(001)과 "내면의 중심"(024)을 찾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 고통과 시련의 재해석 (Struggle & Pain)

- 관련 항목: 004, 007, 033, 040, 041 (및 장 제목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 특징: 니체 철학의 대표적인 명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연료이자 '강해지는 계기'로 적극 해석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장 제목이 이 주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3. 진실과 진정성 (Truth & Authenticity)

- 관련 항목: 008, 029, 030, 032, 055
- 특징: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에게, 그리고 세계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추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진짜를 찾기 전에 먼저 진짜가 되어라"(008)는 구절처럼, 진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천하는 삶 속에 있다고 봅니다.

4. 자유와 자율성 (Freedom & Autonomy)

- 관련 항목: 003, 006, 083, 107, 112
- 특징: 타인이나 사회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힘을 자유의 핵심으로 봅니다. "내 삶을 지배할 권리는 오직 나에게"(006) 있다는 선언과, "질문하는 자만이 자유로워진다"(003)는 통찰이 이를 대변합니다.

5. 변화와 불확실성의 수용 (Change & Impermanence)

- 관련 항목: 005, 027, 037, 043, 076, 079

- 특징: 세상과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안정보다는 불편함(037)을, 고착보다는 유동성을 삶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6. 판단과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Judgment & Gaze)

- 관련 항목: 046, 047, 067, 068, 075, 088
- 특징: 타인의 시선이나 편견, 피상적인 결과(088)에 의존한 판단을 경계합니다. 특히 '당연함'에 대한 의심(075)과 '타인의 기대'로부터의 해방(067)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7. 관계와 공감의 경계 (Relationships & Empathy)

- 관련 항목: 050, 051, 054, 069, 073
- 특징: 타인에 대한 친절과 공감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인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라"(069)는 조언처럼, 건강한 관계는 자기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8. 감정의 통제와 이해 (Emotion & Control)

- 관련 항목: 044, 045, 058, 059, 071, 074
- 특징: 분노, 수치심, 죄책감, 허영심 등의 감정을 억압하기보다 인간적인 현상으로 직시하고 이해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분노와 복수보다는 더 강한 선택(058)을, 불필요한 죄책감(074)으로 자신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9. 삶의 태도와 선택 (Attitude & Choice)

- 관련 항목: 010, 011, 016, 039, 083, 113
- 특징: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태도와 선택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반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012)는 항목은 이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10. 도덕과 가치의 재평가 (Morality & Value)

- 관련 항목: 085, 087, 104, 105, 106, 109
- 특징: 고정된 선과 악의 기준을 의심하고, 도덕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구성물임을 환기합니다. 특히 "악인"이라는 낙인(087)이나, 과거의 옳음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105)에 대한 질문을 통해, 독자 스스로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유도합니다.

토론 주제

1. 평상시 기억하고 있던 잠언이나 명언이 있다면? 누구나 살아 오면서 좋은 명언이나 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시기마다 바뀌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런 잠언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다.

1. 위버맨쉬에서 마음에 드는 잠언 2개를 골라 이야기 해보자.

도서에서 113개의 잠언을 소개하고 있다. 모든 내용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느끼거나 앞으로 다짐할만한 잠언을 고른다면.

3.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 - SNS 시대에 가능할까?

니체는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존재하는 오늘날,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4.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라' -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니체는 단순한 행복 추구를 경계합니다. 그는 고통과 도전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삶을 강조했는데, 여러분은 '행복한 삶'보다 '의미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고독은 필요한가, 외로움은 피해야 할 대상인가?

니체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병리적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까요?

🔄Revision #4

★Created 8 September 2026 12:14:27 by pajuwiki

✎Updated 8 September 2026 13:05:32 by pajuwiki